

41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주의 교육의 새날을 열기를

김육훈

서울공고 역사교사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주의 교육의 새날을 열기를

김육훈

서울공고 역사교사

01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환영한다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이 준비되고 있다.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오래 제자리를 맴돈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나의 기념관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란 가치가 여전히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지 못한 하나의 증표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반갑다.

민주주의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6월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라는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처럼,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항쟁의 승리를 통해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시대를 거스르는 움직임은 여전히 저류를 흐르며, 그래서 조금만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저만치 후퇴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십수년 동안 민주주의가 극적으로 후퇴했다는 체험했다. 누가 어떻게 민주적 권리를 부정당했는지를 열거하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퇴행의 흔적은 뚜렷했다. 급기야 공공연하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자들의 역사인식을 온 국민에게 강요하려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동까지 경험했다.

민주화가 성공적인 과거청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 그래서 마땅히 벌을 받았어야 할 이들이 벌을 받고, 고통스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시민적 결단이 교육을 통해 전승되었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법한 일이었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은 이같은 역사부정·민주주의 후퇴의 물길을 가로막는 하나의 버팀목을 만드는 일과 같다. 아니, 더 이상 후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식이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일구어가려는 모색의 시작이라고 불러도 좋을 일이다.

우리 민주화 역사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곳은 바로 유신독재와 전두환 독재 시기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다. 아울러 죽음 같은 폭력에 맞서면서도 민주화를 향한 열정을 꺾지 않고 마침내 민주항쟁의 승리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 바로 그 현장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야만적인 공간이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서울 한복판

건물 숲 사이에, 그것도 전철역에서 불과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야만이 얼마나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 있었던가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잘 보존된 역사의 현장이 주는 진정성은 압도적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야만적 국가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려면, 인권과 민주주의란 가치를 지향할 목표로 생각한다면, 이 공간이야말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가장 어울린다.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가혹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고통받았던 이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고통스런 현실에 맞서려던 이들이 꾸었던 꿈을 오늘 되새기려는 노력이 더 활발해지길 소망한다.

02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기념은 기억에서 출발한다. 고통스러운 일이든 자랑스러운 일이든 그 일에 현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담는다. 그래서 최소한 더 나쁜 세상으로 퇴행하지 않기를, 나아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다.

그렇다면 남영동 대공분실터에 서울 민주인권기념관은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이 공간의 장소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고려 조건이 아닐까?

이 공간은 1976년 남영동 대공분실로 탄생했다. 이후 이곳에서는 불법 연행, 불법 구금, 무자비한 폭력, 살인적인 고문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이곳에서 고통받았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조작 간첩’이 되고 말았다.

어떤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 곳에 끌려왔고, 끌려온 뒤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기념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은 여기서 비롯된다.

박종철과 김근태는 당연히 이곳에서 기억되어야 한다. 이 곳을 찾는 이들이 그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이곳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더 다양하게 복원되어야 하겠다. 이름난 투사가 겪은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이라면 모두가 인권유린의 대상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피해자 고통 만큼이나 가해자들을 이곳에 소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근안이나 박처원처럼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들은 물론이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이 더 많이 소환되어야 한다. 이 공간 곳곳에 있는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야만적인 고문과 간첩 조작, 그리고 비극적인 살인 등 그들이 했던 야만적인 행위들이 사실적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야만적 고문행위를 정당화했던 사법 절차에 간여한 인물이나 행위도 마찬가지다.

가해자 중 미치광이 같은 이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그저 좋은 경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다가 갈수록 깊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던 이가 더 많았을 것이다. 야만을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이 장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몫일지도 모르겠다.

김근태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인사를 고문했던 이근안은 모두 16차례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의 배후에서 어쩌면 더 많은 사건을 모의하고 조작했던, 박종철 고문살인사건의 주모자 박처원도 13차례 훈포장을 받았다고 한다.(정대희 2019)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남영동 대공분실은 황적으로 조망되어야 한다. 보안사 서빙고 분실이나, 남산 중앙정보부 조사실 등과 함께 조사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의 역사 속에서 조명하자는 뜻이다. . 나아가 당대의 폭력문화 속에서 조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폭력의 역사란 시간적 흐름 속에서도 조망되어야 한다. 일제의 고문 경찰, 전쟁 시기 국가 폭력을 비롯한 고문과 같이, 국가폭력을 양산했던, 청산하지 못했기에 반복되고 반복되는 속에서 더욱 악마화되어갔던 그 과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빨갱이’ 혹은 ‘간첩’ ‘좌경용공’이란 말과 같이, 폭력을 정당화했던 언어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절 많은 이들이 그같은 폭력의 방관자였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일부를 비국민으로 낙인찍고 배제하고 차별하던 그때 논리는 지금 사라졌는지, 아닌지.

이곳이 가해와 피해,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을 이분법적으로 대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좋겠다. 야만적 국가폭력과 숭고한 죽음의 장소로 재현되기보다, 기억하고 애도하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현되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그 시기 행위자들을 두루 보여주는 방식이면 좋겠다. 어쩌면 가해 행위에 가담하면서 동요했던 이들도, 훗날 그 행위를 반성한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도 ‘작은 용기’를 낸 이들도 있었다. 박종철의 죽음에서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못 사람들이 보여준 작은 용기들이 모여 거대한 물줄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들이 형상화될 수 있을 때, 이 곳은 숭고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적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적 참여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기억의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은 좁다. 5층은 몇 사람 함께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비좁다. 그래서 이 공간의 장소성을 잘 살리면서도, 이곳을 찾을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려면 상당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03

민주주의 교육장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

기념은 소수의 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특정 세대의 기억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확산과 전승의 과정이다. 따라서 기념은 동시대 사회를 향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주역을 향하여 열린 활동이다. 기념의 중요한 속성이 바로 교육이란 뜻이다.

잊혀져서 안될 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가치를 더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5.18 부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나아가 과거청산과정에 대한 공공연한 반기에서 드러나듯 역사부정의 실상과 그 메카니즘을 파악하여 경계하는 일도 중요하게 맡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은 학생이나 청년 세대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공간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나면, 이들이 역시 가장 많이 이 곳을 찾을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념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시공간을 교육적으로 구성하는 일이다. 특히 역사적인 장소인 5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5층은 매우 좁다. 더욱이 여러 개의 조사실로 분할되어 있어서 어떻게 꾸며도 그 자체로 한계가 많다. 더욱이 이 공간은 사람이 사람을 참혹하게 고문했고, 죽음에 이르게도 했던 어두운 공간이다. 누구나 쉽게 자녀들이나 학생들과 함께 오기 쉽지 않은 곳이다.

핵심은 어떤 이야기 속에 5층을 배치할 것인지를 말한다. 이 공간은 두 이야기가 만나는 곳이다. 하나는 단지 좋을 경찰을 꿈꾸었을 뿐이던 어떤 이가 가혹한 고문의 가해자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언젠가 그들과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여기로 오는 길을 선택했던 이들의 이야기다. 시설 전체는 이 두 이야기, 서로 다른 길에서 시작하여 하나로 만나게 될 운명인 이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배치되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수행할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의식해야 한다. 공간 구성과 전시 설계는 물론 모든 기념하는 행위가 교육적 견지에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에 설립 준비단 내부에 교육팀을 두고 자문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 역사교사나 시민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람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를 안내할 이들의 입장에서 공간 구성과 전시설계를 숙의할 수 있을 때, 교육적 의미가 더 많이 살아날 것이다. '무엇을 보여줄까'란 관점이 아니라, 이

곳을 찾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낯선 공간에서 만난 충격적인 장면을 직면한 이들은 저마다 다른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공간이 이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자신을 향한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면서, 그 질문을 바탕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구성되길 바란다.

04

민주인권기념관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

교육팀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인권유린의 역사와 같이 아픈 과거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활동이 갖는 어려움과 의미를 토론하는 데서 출발하면 좋겠다. 교사들이 지금의 남영동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올 경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쉽지 않다 공간이 주는 압도적 힘 때문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나이가 아래로 내려가면 더욱 그렇다.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여서, 자녀를 데리고 와서 “여기가 경찰 아저씨들이 사람을 잡아 고문하다 죽인 곳이야”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공간이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안내자가 교육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팀이 구성된다면, 이 부분을 수업했던 역사교사들의 수업 실천 사례를 수집하고 그들의 경험을 경청하고, 5.18 교육의 기본방향을 세우기 위해 진행한 깊이 있는 토론 경험을 참조하고, 홀로코스트교육의 원칙과 관련된 논의들을 참조하면서, 전시해설자 혹은 안내자를 위한 참고자료나 매뉴얼 같은 것을 개발하기 바란다. 우선은 전시해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기념관을 중심에 놓는 민주인권교육의 사례를 공유하고 심화하는 활동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거나,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어도 늘 시간이 부족한데, ‘지난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심지어 교육계 내부에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면 좋겠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 동안 민주화 역사교육을 위해 오래 공을 들였다. 우리 사회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있지만, 민주화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능을 맡아 수행하는 곳은 이 사업회 밖에 없다.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이 탄생한다면, 민주화 역사를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기능을 맡아 수행하면 좋겠다. 거듭된 역사전쟁으로 인해, 교과서에 서술된 역사는 민주화운동의 성과나 과거 청산 작업의 결과를 충실히 담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민주화 역사 관련 내용을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검토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념관이 맡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기념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기능에 대해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가능한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

기념관이 교육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공간 배치나 전시 구성을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5층과 4층을 관람하는 데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건물 안과 밖을 연결하는 어떤 장치 같은 것도 마땅하지 않아서, 안내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동선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 기념관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5층에 이르는 동선, 그리고 그곳에서 비롯되는 동선을 꾸미는 방식에 따라 기념관의 교육적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5층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하고 기념관의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차제에 기념관의 교육적 기능을 살리기 위한 별도 공간을 제안하면 좋겠다. 우선 7층 건물의 전시 내용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한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 5층의 전시를 맥락화할 수 있도록 하기, 인권유린의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의 인권 문제로 연결하기, 무엇보다 5층으로 끌려왔던 이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그것이다.

7층 건물에서 내려온 이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이 공간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저마다 자신들이 생성한 질문을 꺼내 놓고, 그들의 소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의기투합한 학생들끼리 더 심화된 토론과 학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소집단 학습실도 준비되면 좋겠다.

자료 조사와 학습이 가능한 도서관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주인권기념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과 자료를 전시할 뿐 아니라, 자료 조사와 가공이 가능한 컴퓨터도 여럿 준비하면 좋겠다. 무엇보다 오래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집한 아카이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 곳을 찾은 이들이 적어도 두 시간 이상은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교사가 학생들을 안내하여 작성하고 왔을 때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 때 자유학기제를 비롯하여 학교의 전일제, 반일제 프로그램들이 폭넓게 모색될 수 있다.

그냥 한번 와 보는 박제된 기념관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혹은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민주인권과 관련된 작품 전시회나 공연도 열리면 좋겠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혹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역사를 다룬, 과거청산을 둘러싼 갈등을 다룬 영화 상영회도 꾸준히 진행되면 좋겠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공간을 비롯하여 주변 관련 장소를 연결하는 답사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면 좋겠다. 한국민주화 역사와 민주주의 인권의 현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나 시민 대상 강연회도 준비되면 좋겠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국가 기관들과 협력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경찰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조금 더 넓히면, 로스쿨 학생들도 좋을 것이다. 당연히 인권교육의 책무를 지니는 교사들도 대상이 될 것이다. 교장-교감연수 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그 일환으로 이곳을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해당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련 교육내용을 적절하게 개발해두어야 할 것이다.

학교나 교사를 경유하지 않고, 기념관과 학생/청소년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필요하겠다. 기념사업회가 운영해온 청소년사회참여체험학습 경험을 나누는 행사는 좋은 사례가 되겠다. 역사교사모임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역사만들기 대회’를 참조하여 민주화 역사와 관련된 행사를 치르거나, 민주인권과 관련된 의제를 주제로 한 UCC 만들기 대회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작품이 수집된다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이 공간에 전시하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일정한 공간을 청소년들의 소도(蘇塗) 처럼 꾸릴 것도 제안하고 싶다. 기념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학생이나 청년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학생/청소년 동아리나 청년 단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을 폭넓게 후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공간 이용에 관한 최소한의 준칙은 사용자들이 만들도록 한다.

05

민주주의와 인권의 미래를 상상하는
교육장이 되기를

지난 해 어느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35년 만에 이 공간을 찾은 적이 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두렵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두명의 가해자 얼굴도 떠올랐다. 어쨌거나 그렇게 한번 돌아보고 나니 다시 갈 것 같지 않았던 공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대공분실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두 곳에서 참을 수 없었다. 먼저, 테니스 장. 전혀 기억에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영화 1987 속의 테니스 장면도 무슨 맥락인지 모르고 봤다. 그런데 막상 그 곳에 서니, 온몸이 치떨리는 기분이었다. 다른 한 곳은 4층 경찰인권사료 전시관. 박종철을 추모하는 공간보다 더 넓은 곳에, 경찰이 인권 옹호를 위해 해 온 일을 전시해두었다. 모욕감을 참기 어려웠다.

이 공간은 1976년에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만들어진 뒤 출근 경찰이 운영하다가, 2018년 12월에 완전히 철수했다. 처음 5층으로 지어졌다가 얼마 뒤 7층으로 증축됐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내부 모습도 적지 않게 달라졌다. 2005년 경찰청 인권센터로 만들어져 운영된 뒤에도 내부 구성이 제법 달라졌다.

나의 안내로 이 공간을 찾았던 어떤 학생은, 자신이 위인전에서 읽은 인물이 이 고문 공간을 설계했다는 데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귀가와 동시에 출판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나는 이 장소 자체의 역사가 기록되어 오래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가족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이들이 찾다찾다 이 곳에 도착했던 이야기, 그리고 저 육중한 철문 앞에서 좌절했던 이야기로부터, 이 공간을 기억하고 보존하여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가해의 역사를 은폐하면서 오히려 '인권 경찰'의 홍보 시설 중 일부로 활용했던 때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민주인권센터 건립이 확정된 이래, 이 기념관을 어떻게 만들지를 놓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애도와 추모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통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공간으로 할 것인지,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성찰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한 축이었다. 다른 한 축은 테니스장 보존 문제를 포함하여 역사의 현장을 보존 여부를 포함하여 공간 재구성과 관련된 주제였다. 훗날 완성된 기념관에는 이 논란의 과정 자체를, 그리고 합의의 맥락을 그대로 기록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남게 된 민주인권기념관의 모습을

논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만나면서 직면했던 두 가지 상황을 상기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다음은 언젠가 대공분실을 학생들에게 안내한 뒤 그들이 쓴 소감문에서 찾은 문장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와 일제 시대만을 생각해봐도 악의 쪽에 붙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끝까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한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럽고 그들도 그들자리에서 노력했듯이 나도 내 자리에서 노력해야겠다.

자신도 뭔가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고맙지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같은 반열에 놓고 ‘조상님’ 운운하는 부분은 멋쩍다. 6월항쟁 30주년이 지났으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전히 그 시대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한 민주화 세대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세대의 정서가 어떤지와 무관하게, 이후 세대들은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민주화운동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 민주·인권이란 의제가 여전히 오늘의 문제임을 상기시킬 수 없다면, 과거는 화석이 되고 만다.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수업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도 가끔 볼 수 있다.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정말 존경해요.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 정말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냥 친일파 하면서 가족 돌보고 살래요.”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던 이들이 당시에 소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 학생이나 청년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독립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그것이 어떤 특별한 혹은 위대한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양 인식하도록 하지 않았는지, 희생을 아파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 중에 감수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민주화운동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당위적 실천으로서가 아니라, 참가자 자신이 삶 속에서 직면했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는지도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민주화를 인권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를 반독재 투쟁-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개념화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확장하려는 운동, 차별에 맞서려는 다양한 운동이나 일상의 민주주의라 불릴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민주화운동 범주 밖에 두었다.

나는 이 공간이 6월항쟁의 승리로 민주화가 이룩되었다는 식의 관념에 터하여 그 세대들의 정치적 승리를 현상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화 역사 전체를

단일한 서사로 그려 넣는 대신, 불행했던 과거를 성찰하고 오늘의 민주주의·인권 현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두식(2012), 고문 공간으로서의 남영동 대공분실과 그 이용자들: 1985년의 김근태 씨 고문 사건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43

김육훈(2017), 민주화운동사 · 민주주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역사와교육 17.

이동기(2019),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구상 10개의 테제

이동기(2018), 현대사 몽타주, 돌베개.

이영제(2019),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의 의미와 과제, Issue & Review on Democracy 39

최호근(2013), 기념시설을 활용한 역사교육. 역사와 담론, 66, 411-444.

최호근(2019), 기념의 미래, 고려대출판문화원

정대희, 표창원 “저XX 째새야’ 몰래... 이 비극 우리 시대에 끝내자” [남영동의 봄 ①]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뀌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다, 오마이뉴스 19.05.08 12: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6103]

김학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아우라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 민주인권기념관 공론화 토론회 무엇이 쟁점인가, 오마이뉴스 19.07.08 20:5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17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주의 교육의 새날을 열기를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